

제공일자	2010. 6. 8(화)	담당자	이진면 동향분석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4051)	연락처	3775-4015	총8매

제 목 : 생보 회복세 가시화, 손보 두자리 성장세 지속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FY2010년 중 생명보험은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며, 손해보험은 두 자리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으로 2010년 5.3%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 급랭 등으로 급변동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금리가 경기회복 가속,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는 점차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 외환수급 여건의 개선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에 있는 보험산업은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FY2010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FY2009 일부 종목(생존, 퇴직연금 등)의 초과 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FY2009 8.9%에서 FY2010 8.1%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은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의 점진적 회복,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요 지속, 금리 및 세제 상 유리한 생사혼합보험의 성장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4.8%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계속보험료 안정적인 유입에 의한 장기손해보험의 견실한 성장 지속, 경기회복에 따른 보증보험 수요 증가, 배상범위 확대 등에 의한 특종보험 성장 지속 등으로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감소,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정체 등으로 FY2009 16.7%에서 FY2010에는 13.9%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보험산업은 향후 성장세의 지속이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남아있고, 전통형 보험의 성장정체도 예상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투자형 상품·퇴직연금·건강보험, 해외진출 등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역다각화를 위한 중장기적 성장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2010년 수입보험료 전망』 요약

◆ 경제 전망

□ (실물경제)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동향 : 2009년 실물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3/4분기부터 증가세가 가속되고, 내수부문은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과 토목건설,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투자도 증가하면서 실질GDP 성장률은 2009년 3/4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후 4/4분기 6.1%, 2010년 1/4분기 7.8%의 빠른 성장세를 시현

-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 고용율 상승 등 고용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최근 들어 석유류 및 농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전망 : 2009년 중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2%에 그쳤던 GDP 성장률이 2010년에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등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5.3%로 크게 높아질 전망

- 민간소비가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4.5%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 등으로 14.6% 증가하며, 건설투자는 SOC투자의 지속 등에 힘입어 1.4%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됨.
- 한편 수출은 유럽경제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수입도 수출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수출보다 빠른 15.2%의 증가에 달할 전망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이 2009년에 58.6%에서 2010년에 58.9%로, 실업률은 3.6%에서 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세에 의한 수요압력과 국제유가 등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3%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 국제수지는 국내경기의 상대적인 빠른 회복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각각 2009년 427억달러 및 561억달러에서 2010년에 108억달러 및 323억달러로 감소할 전망

- (금융시장) 국내외 경기의 회복으로 자금수요 증가,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완만한 상승,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에 따른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예상됨.
- 동향 : 금융시장이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시중금리의 점진적 하락, 민간대출의 증가 등 안정되는 있고,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음.
 - 기준금리가 작년 2월부터 2.0%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작년 중반 이후 하향 안정화되면서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경상수지 흑자,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고, 주가는 금년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외환 및 주식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
- 전망 : 경기회복의 가속으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중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하향 안정화 될 전망이다.
 -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2010년 5월초 1,100원/달러 대에서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 급랭 등으로 1,200원/달러로 급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한 보험산업은 FY2010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FY2009 일부 종목의 초과 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FY2009(E) 8.9%→FY2010 8.1%)
- (생명보험) FY2010 생명보험산업은 연금 및 생사혼합보험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며 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한 4.8% 수준일 전망
 - 사망보험 성장률은 종신 및 통합형보험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 부문에서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2.9%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
 - 보험회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질병보험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나 종신·CI(치명적질병보장)·통합보험 등 사망담보보험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생존보험은 FY2009 하반기에 초과 성장한데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겠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요의 지속으로 6.4% 성장할 전망

- 2009년 10~12월 연금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2009년 7~9월 29.7%, 10~12월 107.2%로 높아졌는데 이중 상당수는 일시납보험료에 의한 것이어서 FY2010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o FY2010 들어 생사혼합보험은 공시이율에 대한 상한 설정, 전년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및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전략, 타 저축성상품 대비 금리 및 세제 우위 등과 같은 요인에 힘입어 11.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은행의 저축성상품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 생사혼합보험이 판매됨에 따라 당분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o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이 확대될 경우 수요가 차츰 회복되어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6.9%의 성장을 예상
- 변액유니버설보험도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신규 가입이 증대되고 해지로 인한 계속보험료 감소 현상도 진정될 것임.
- o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2010년이 제도 전환(퇴직보험→퇴직연금)의 종료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높은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일시적 요인의 소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3.5% 축소될 전망
- 전년에는 손비 처리 가능한 사내예치금이 퇴직금 추계액의 35%에서 30%로 축소되고, 대기업 계열사의 퇴직연금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39% 성장하였으나 이들 효과가 상당 부분 소진되는 FY2010에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손해보험) FY2010 손해보험산업은 두자리 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감소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정체로 인해 성장률이 FY2009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o 자동차 : FY2010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3.2%로 증가, 손해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7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FY2009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로 인한 신차 판매 증가가 자동차보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2.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FY10에는 실물경기 회복이 본격화 되면서 고가차량 위주의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로 인해 3.2% 성장할 전망
- FY2009 손해율은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한 사고 급증의 영향으로 FY2008에 비해 5.9p 악화된 75.6%를 나타냈으며, FY2010에는 기저효과 및 보험료 규모 증대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되겠지만 여행차량 증가로 73.8%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o 장기손해 : FY2010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7%의 견조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율은 78.6%로 개선될 전망
-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FY2009에는 22.3%

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며, FY2010에는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이 예상되지만 초회보험료가 FY2009에 비해 감소하면서 16.8%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직전 건강체의 대거 유입과 지난해 말 신종플루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된 78.6%를 보일 전망

○ 일반손해 :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 FY2009 8.1%, FY2010 8.3%의 성장이 기대됨.

- 화재보험은 FY2009년 전 종목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2.4% 감소하였으나, 2011년 노래방 및 PC방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FY2010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고 0.2% 성장할 전망
- 해상보험은 2008년 말 환율 영향으로 인한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FY2009에 9.4%감소하였으나, FY2010에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5.8%의 성장이 예상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로 관련 이행보증보험 감소가 예상되나 경기회복으로 기타 보증보험의 성장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개선될 전망 [FY09 8.7%, FY10 9.6%]
- FY2010 특종보험은 기업복지 차원의 단체상해보험 시장확대, 배상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배상책임 범위 확대, 환율하락과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자보험의 성장이 예상되나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기술보험의 부진으로 FY2009의 13.6%보다 낮은 9.1%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0년 경제 및 보험산업 주요지표 전망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2007	2008	2009	2010(F)
실질GDP	5.1	2.3	0.2	5.3
(명목GDP)	7.3	5.3	3.6	8.1
민간소비	5.1	1.3	0.2	4.5
건설투자	1.4	-2.8	4.4	1.4
설비투자	9.3	-1.0	-9.1	14.6
재화수출	11.9	4.6	0.0	11.8
재화수입	10.9	4.5	-7.9	15.2
실업률	3.2	3.2	3.6	3.5
(고용률)	59.8	59.5	58.6	58.9
소비자물가	2.5	4.6	2.8	3.1
경상수지(억달러)	58.8	-57.8	426.7	108.1
상품수지(억달러)	281.7	56.7	561.3	312.9
상품수출(억달러)	3,790.5	4,329.2	3,735.8	4,410.3
(%)	(14.2)	14.2)	-13.7)	18.1)
상품수입(억달러)	3,508.8	4,272.5	3,174.6	4,097.4
(%)	(15.4)	(21.8)	(-25.7)	(29.1)
회사채(AA-)	5.7	7.0	5.8	5.5 [하반 5.7]
국고채(3년)	5.2	5.3	4.0	4.5 [하반 4.7]
원/달러(평균)	929.2	1,099.5	1,276.4	1,094.8 [하반 1,62.5]

보험산업 주요 지표 전망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수입보험료(억원, 성장률)				
- 생명보험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 손해보험	339,818 (14.9%)	374,953 (10.3)	437,599 (16.7)	498,561 (13.9)
- 전 체	1,090,774 (13.6%)	1,110,567 (1.8)	1,209,080 (8.9)	1,306,719 (8.1)
보험침투도(%) ¹⁾				
- 생명보험	8.3	7.2	7.1	6.9
- 손해보험	3.8	3.7	4.0	4.3
- 전 체	12.1	10.9	11.1	11.2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550	1,513	1,583	1,654
- 손해보험	701	771	898	1,020
- 전 체	2,231	2,285	2,480	2,674
생손보 구성비(%)				
- 생명보험	68.8	66.2	63.8	61.8
- 손해보험	31.2	33.8	36.2	38.2

주 :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37,396	7.8	254,915	7.4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954	-1.9	307,876	3.0	
	생사	148,345	19.4	152,491	2.8	160,137	5.0	173,348	8.2	
	소계	679,058	13.4	677,526	-0.2	696,487	2.8	736,139	5.7	
	단체	71,898	9.7	58,087	-19.2	74,994	29.1	72,019	-4.0	
	합계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손해보험	화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보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종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장기	163,436	19.5	188,828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인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직	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계	339,818	14.9	374,953	10.3	437,599	16.7	498,561	13.9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